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점심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점심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점심

완성된 이름

점심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점심

한눈에 보는 기록

뜻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부터 반나절쯤까지의 동안.

요약 연대표

표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현재
점심						
점심						
點心						
단신						
점심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부터 반나절쯤까지의 동안.

문헌의 첫 기록

16세기

수록 용례

20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6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점심'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아래 문헌의 뜻 구분은 원자료를 따르며, 오늘날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부터 반나절쯤까지의 동안.

☞ 점심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점심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점심 사전 표기 요약	—	●→	●→	—	—	—
점심 사전 표기 요약	—	—	●→	●→	●→	●→
점심 사전 표기 요약	—	—	—	—	●→	●→
點心 문헌 수록 표기	—	—	●→	●→	●→	●→
면신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5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점심

16세기17세기19세기20세기

- 점심

17세기18세기19세기20세기

- 점심

19세기20세기현재

- 點心

17세기18세기19세기20세기

- 뎨신

18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5종

뎨심, 點心, 점심, 뎨신, 점심

↳ 점심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점심’은 16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뎨심’으로 나타나고 17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點心’도 나타난다.

🔊 소리와 발음의 특징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난 모음 ‘ㅣ’나 반모음 ‘ㅣ’ [j] 앞에서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뀌는 구개음화에 따라 17세기에는 ‘점심’이 나타나고,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ㅆ, ㅈ’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ㅕ, ㅛ, ㅜ’가 ‘ㅓ, ㅗ, ㅛ, ㅜ’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19세기에는 ‘점심’이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문헌 속의 점심

전체 용례 20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점심’에 끼니로 먹는 음식. 또는 ‘점심’에 끼니를 먹는 일. 문헌의 뜻 · 전체 17개

16세기 점심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점심

📖 출처 1518 여씨향약언해 38ㄱ

용례 01

66 문헌 용례

오직 음식 회차에 참여티 못하게 하고 각별이 돈을 가도와 잠깐 다른 싸해 가 점심 하게 하라.

📖 현대어 풀이

오직 음식 회차에 참여치 못하게 하고 각별히 돈을 거두어 잠깐 다른 땅에 가 점심을 먹게 하라.

📖 출처 16세기 후반 순천김씨묘출토언간 27

용례 02

66 문헌 용례

오늘 점심으란 마고 나죄 세히 밥만 하여 두소.

📖 현대어 풀이

오늘 점심은 말고 저녁에 세 사람의 밥만 하여 두소.

📖 출처 16세기 후반 순천김씨묘출토언간 44

용례 03

66 문헌 용례

그제 둘히 점심 아니 머그니와.

📖 현대어 풀이

그저께 두 사람이 점심 먹지 않은 것과.

17세기 點心, 점심, 점심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點心, 점심, 점심

출처 1632 가례언해 2:5L

용례 04

66 문헌 용례

俗의 날은 點心이라.

現代어 풀이

세속에서 말하는 점심이다.

대응 원문

俗謂點心.

출처 17세기 전반 진주하씨묘출토연간 103

용례 05

66 문헌 용례

아자비 진디 브디 머검즉게 이대 하여 머기고 덤심도 하여 머기소.

現代어 풀이

아재비의 진지를 부디 먹음직하게 잘 차려서 먹이고 점심도 하여 먹이소.

출처 17세기 전반 진주하씨묘출토연간 164

용례 06

66 문헌 용례

남이니 음식 도케 하여 머기시고 점심 하여 주쇼셔.

現代어 풀이

남이니 음식 좋게 하여 먹이시고 점심을 해 주십시오.

18세기 점심, 點心, 던신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점심, 點心, 던신

출처 18세기 후반 일동장유가 3:24ㄱ

용례 07

66 문헌 용례

삼방의 얼핏 다녀 점심 먹고 길 떠나서.

㉮ 현대어 풀이

삼방에 얼핏 다녀 점심 먹고 길 떠나서.

출처 1765 박통사신석언해 3:32ㄱ

용례 08

66 문헌 용례

客官아 므슴 차를 먹으며 므슴 點心을 먹을싸.

㉮ 현대어 풀이

객관아, 무슨 차를 먹으며 무슨 음식을 먹겠느냐?

㉮ 대응 원문

客官吃甚麼茶 吃甚麼點心.

출처 1778 방언유석 2:31ㄱ

용례 09

66 문헌 용례

點心 던신.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세기 점심, 點心, 덤심 외 1종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점심, 點心, 덤심, 점심

출처 1866 진대방전 경판28장본 7ㄴ

용례 10

66 문헌 용례

그 안히 점심을 권후되 공경히기를 서로 손 디접후듯 후거늘.

㉮ 현대어 풀이

그 아내가 점심을 권하되 공경하기를 서로 손 대접하듯 하거늘.

출처 1876 가곡원류 37

용례 11

66 문헌 용례

兒孺야點心도 허려니와濁酒 몬져 걸너라.

역 현대어 풀이

아이야 점심도 먹으려니와 탁주 먼저 걸러라.

출처 1880 한불사전 474

용례 12

66 문헌 용례

점심 [點心].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6 국한회어 곤:260

용례 13

66 문헌 용례

점심 [點心].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점심, 점심, 점심 외 1종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점심, 점심, 점심, 點心

출처 1908 현미경 81

용례 14

66 문헌 용례

점심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역 현대어 풀이

점심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출처 1908 구마검 70

용례 15

66 문헌 용례

시장^ㅎ갯다 점심 먹어라.

ㄷ ㅅ 현대어 풀이

시장^ㅎ갯다. 점심 먹어라.

출처 1913 세검정 15

용례 16

66 문헌 용례

오늘 선유 ^ㅅ싸달그로 점심을 못 잡수시여셔.

ㄷ ㅅ 현대어 풀이

오늘 선유 때문에 점심을 못 잡수셔셔.

출처 1921 조선일보 2월 22일 1면

용례 17

66 문헌 용례

여기서 갯치 點心을 잡수기가 실삼닛가—.

ㄷ ㅅ 현대어 풀이

여기서 같이 점심을 잡수시기가 싫습니까?

하루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정오부터 반나절쯤까지의 동안. 문헌의 뜻 · 전체 3개

20세기 𣎵심, 점심, 점심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𣎵심, 점심, 점심

출처 1908 보감 3:181ㄱ

용례 18

66 문헌 용례

이십일 점심 후에 홀연히 병이 드러 증세 위중하니.

現代어 풀이

이십일 점심 후에 홀연히 병이 들어 증세가 위중하니.

출처 1912 만인계 86

용례 19

66 문헌 용례

또 오늘 점심에는 우리 가세에 덕당하게 그를 위하야 축슈하느 술이나 먹세.

現代어 풀이

또 오늘 점심에는 우리 가세에 적당하게 그를 위하여 축수하는 술이나 먹세.

출처 1920 동아일보 8월 22일 4면

용례 20

66 문헌 용례

우리들은 그 뒤에도 얼마큼 리약이를 하다가 점심에는 면보를 사 먹고 공원 안에서 온종일 산보를 하다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점심의 보충 설명

이익(李瀾, 1681~1763)은 《성호사설(星湖僿說)》에서 당시 사람들이 ‘점심(點心)’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점심’은 원래 적게 먹는 ‘소식(小食)’을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말을 잘못 사용하여 낮에 먹는 ‘오찬(午餐)’을 ‘점심’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낮에 먹더라도 조금만 먹을 때는 ‘점심’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식(大食)’을 할 경우에는 낮에 먹는 밥을 ‘점심’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익이 주장한 대로 ‘점심’은 원래 간단하게 먹는 간식을 의미했다. 빈속에 점을 찍듯이 조금 먹는다는 의미로 ‘점심(點心)’이라고 한 것이다. 옛사람들은 주로 아침과 저녁을 제대로 차려 먹고 사이사이에 간식을 먹었는데, 시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먹는 음식을 모두 ‘점심’이라고 했다. 예를 들어, 오전에 밥을 먹기 전 새벽에 간단하게 먹는 음식도 점심이라고 했다. 중국의 여러 문헌에서 이러한 간식을 ‘점심’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그러던 중 낮에 간단하게 먹던 음식을 제대로 차려 먹게 되면서 ‘간식’의 의미로 사용하던 ‘점심’이 지금과 같이 낮에 먹는 음식이라

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반면 중국에서는 아직도 ‘점심’이 ‘간식’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광둥 지역에서 간식으로 먹던 만두류가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음식을 ‘딴심’이라고 하게 되었는데, ‘딴심’은 ‘點心’을 광둥어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우리말에서는 ‘아침에 먹는 음식’을 ‘아침’이라 하고 ‘저녁에 먹는 음식’을 ‘저녁’이라고 한다. ‘아침’과 ‘저녁’은 원래 ‘때’를 나타내는 말이지만, 이렇게 ‘끼니’의 의미로도 쓰이면서 ‘아침’과 ‘저녁’이 ‘때’와 ‘끼니’의 의미를 모두 가지게 되었다. ‘점심’은 원래 ‘간식’의 의미로 출발하여 우리말에서 ‘끼니’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데, ‘아침’과 ‘저녁’이 ‘때’와 ‘끼니’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인지, ‘점심’에도 ‘때’의 의미가 추가되어 결국 ‘점심’ 역시 ‘때’와 ‘끼니’의 의미를 모두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아침, 점심, 저녁’은 ‘때’와 ‘끼니’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지만, ‘아침’과 ‘저녁’은 ‘때’의 의미로만 쓰이다가 나중에 ‘끼니’의 의미가 추가된 것이고, ‘점심’은 ‘끼니’의 의미로만 쓰이다가 나중에 ‘때’의 의미가 추가된 것이어서 의미 확장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

점심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김상보 2006 《조선시대의 음식문화: 음식문화를 통해 보는 조선시대·조선사람》 가람기획
- 정연식 2001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2》 청년사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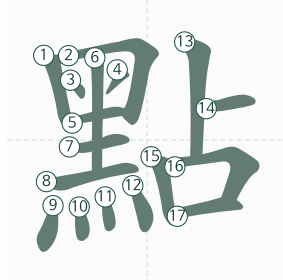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점심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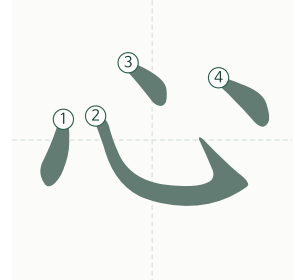
뜻·음 점 점
총 17획 · 부수 黑



hanja.wordrow.kr/한자/點/

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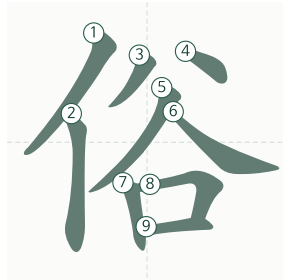
뜻·음 마음 심
총 4획 · 부수 心



hanja.wordrow.kr/한자/心/

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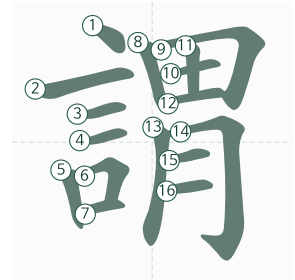
뜻·음 풍속 속
총 9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俗/

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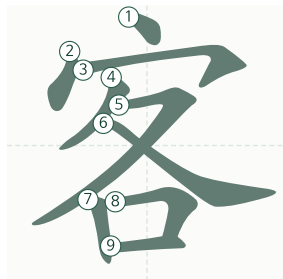
뜻·음 이를 위
총 16획 · 부수 言



hanja.wordrow.kr/한자/謂/

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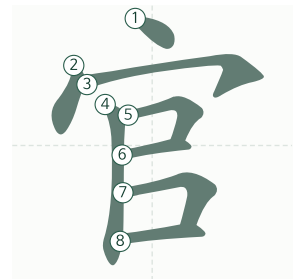
뜻·음 손객
총 9획 · 부수 宀



hanja.wordrow.kr/한자/客/

官

뜻·음 벼슬 관
총 8획 · 부수 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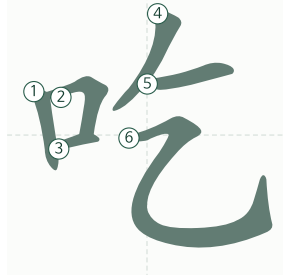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官/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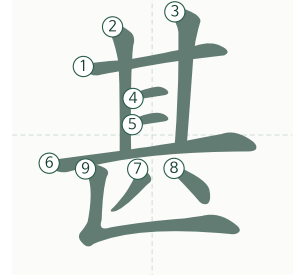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吃 뜻·음 말더듬을 흘
총 6획 · 부수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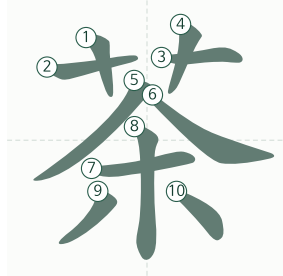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吃/

甚 뜻·음 심할 심
총 9획 · 부수 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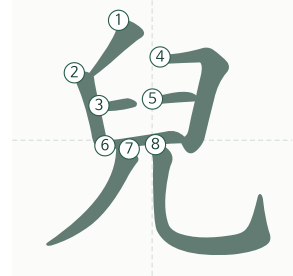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甚/

茶 뜻·음 차다 / 차차
총 10획 · 부수 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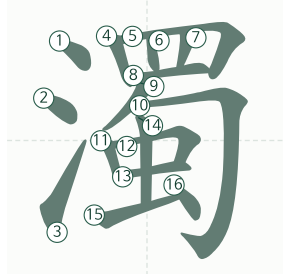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茶/

兒 뜻·음 아이아
총 8획 · 부수 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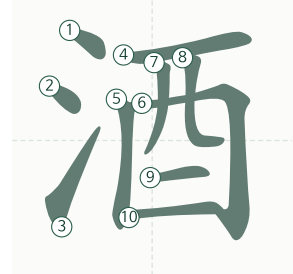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兒/

濁 뜻·음 흐릴 탁
총 16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濁/

酒 뜻·음 술 주
총 10획 · 부수 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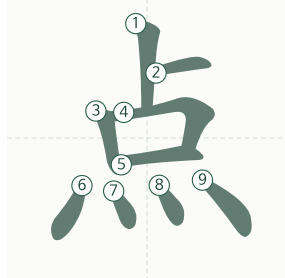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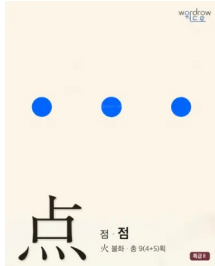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酒/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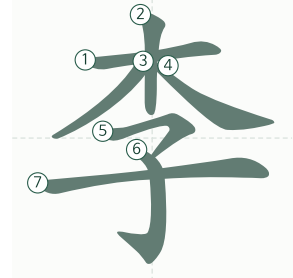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点 뜻·음 점[點] 점
총 9획 · 부수 火



hanja.wordrow.kr/한자/点/

李 뜻·음 오얏·성(姓) 리
총 7획 · 부수 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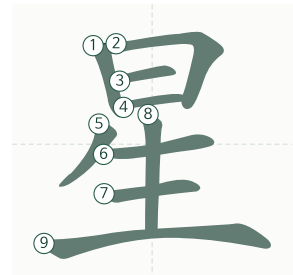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李/

渾 뜻·음 물이름 익
총 20획 · 부수 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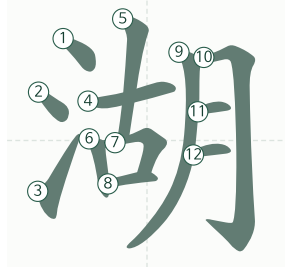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渾/

星 뜻·음 별 성
총 9획 · 부수 日



hanja.wordrow.kr/한자/星/

湖 뜻·음 호수 호
총 12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湖/

儻 뜻·음 잘게부술 사 / 잘게부술 새
총 15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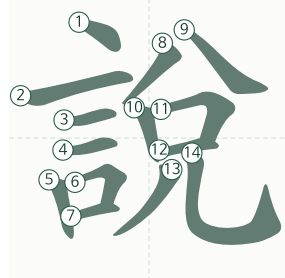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說

뜻·음 말씀 설 / 달랠 세

총 14획 · 부수 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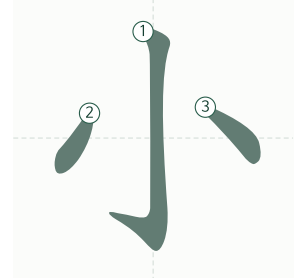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說/

小

뜻·음 작을 소

총 3획 · 부수 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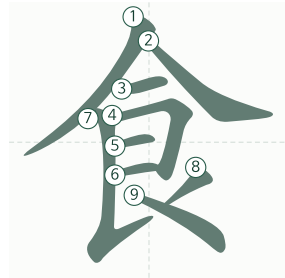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小/

食

뜻·음 밥·먹을 식

총 9획 · 부수 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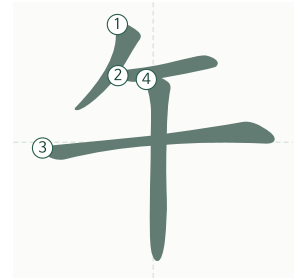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食/

午

뜻·음 낮 오

총 4획 · 부수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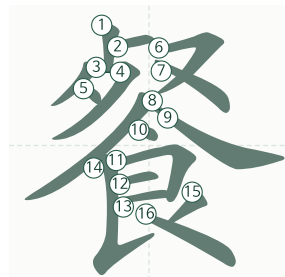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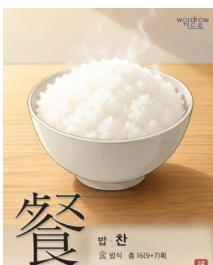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午/

餐

뜻·음 밥 찬

총 16획 · 부수 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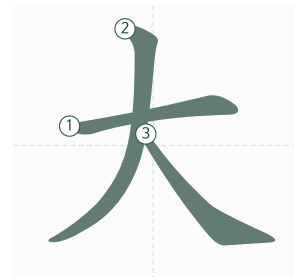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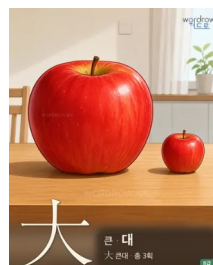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餐/

大

뜻·음 큰 대

총 3획 · 부수 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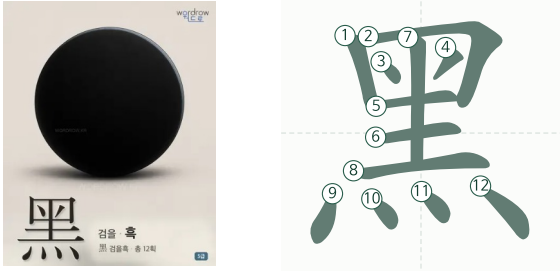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大/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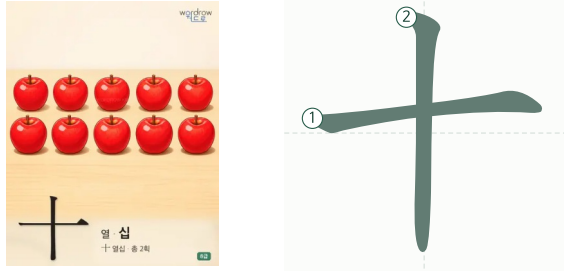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黑 뜻·음 검을 흑
총 12획 · 부수 黑



hanja.wordrow.kr/한자/黑/

十 뜻·음 열 십
총 2획 · 부수 十



hanja.wordrow.kr/한자/十/